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May + June 05/06 Vol. 170

더 좋은 의료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환자경험 평가

환자경험 평가란,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과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의료진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는지 치료과정에 환자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2019년 5~11월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국민 여러분께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업무인 환자경험 평가 수행을 위해 전화번호만을 수집하며, 환자병력이나 그 외의 민감한 개인 정보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04 한눈에 보는 질병
감기로 적각하기 쉬운 질환 천식



16 HIRA 토크보기
의료기관과 약국의 인력, 시설, 장비 현황을 관리합니다



18 우리 지역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22 내 삶의 활력
축구동호회, '초대 챔피언의 영광 되찾을 것!'



24 건강한 동행
수원 원스기병병원,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참여



34 그곳에 가면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맞이한 고즈넉한 봄



38 마음 연구소
걱정 속에 갇힌 나, 범불안장애?



40 HIRA News
2019 고객만족 부문 국가산업대상 수상 등



46 의약계 안내사항
고혈압(13차)-당뇨병(7차) 적정성 평가결과 등

2019 05/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드는 건강정보 전문지 Vol. 170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Contents

건강한 이야기

- 04** 한눈에 보는 질병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질환, 천식
- 08** 질병 A to Z
천식, 완치될 수 있을까?
- 14** 병원평가정보
천식 병원평가정보 알아보기

행복한 이야기

- 16** HIRA 톨아보기
의료기관과 약국의 인력, 시설, 장비 현황을 관리합니다
- 18** 우리 지역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 22** 내 삶의 활력
축구동호회, '초대 챔피언의 영광 되찾을 것'
- 24** 건강한 동행
수원 월스기념병원,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참여
- 28** 정책·이슈
치과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30** 문화 산책
수채화 같은 감성에 물들다, 비에 담긴 풍경
- 34** 그곳에 가면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맞이한 고즈넉한 봄
- 38** 마음 연구소
걱정 속에 갇힌 나, 범불안장애?
- 40** HIRA News
2019 고객만족 부문 국가산업대상 수상 등
- 42** 독자의 소리
경기 고양시 조윤영 님 등

유익한 이야기

- 46** 고혈압(13차)·당뇨병(7차) 적정성 평가결과
- 50** 페렴(3차) 적정성 평가결과
- 5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54** 알코올 전문병원 제도
- 56** 2019년도 상반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 58**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방문 컨설팅

의약계 안내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 홍보 채널에서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hirasabo.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ok_hira
 팟캐스트 <오케바디>: <http://www.podbbang.com/ch/9584>
 심평TV: <http://hiratv.or.kr>

* 책자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2차원 음성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ecial Theme.

천식 Asthma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발행일_ 2019년 5월 27일 통권 제170호 발행처_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_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발행인_ 김승택 편집인_ 김형호
 기획 디자인_ 유니크플러스 인쇄_ 세원문화사
 고객센터_ 1644-2000 / 033-739-0324

A s t h m a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질환 천식

우리나라 천식 환자의 사망률은 10만명당 4.2명으로 OECD 평균인 1.4명 대비 월등히 높다. OECD 가입국 중 천식 사망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천식은 만성적이고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므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 HIRA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통해 천식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알아보자.

***주의사항**

본 통계는 환자 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내용을 기준으로 수치를 산출한 것으로서, 실제 환자 수치와 다를 수 있음.



천식(Asthma)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아주 예민해진 상태로, 때때로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가랑가랑한 숨소리에 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병으로,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이다.

HIRA 보건의료빅데이터 국민관심질병통계(2018년)

연도별 천식 환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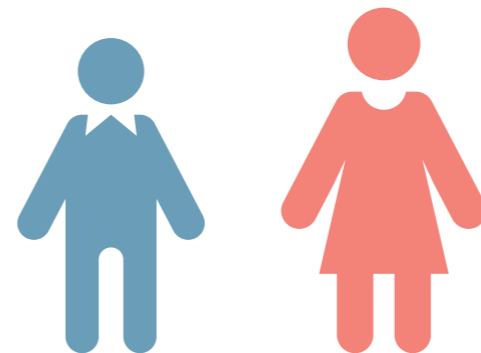
꾸준히 감소 추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식을 앓고 있을까?

144만 3,246명

남성 65만 6,561명 여성 78만 6,685명



환자 1인당
연평균 영양급여비용은?

11만 112원

남성 9만 9,037원 여성 11만 9,355원



A s t h m a

환자 1인당 보험자부담금은? 7만 7,30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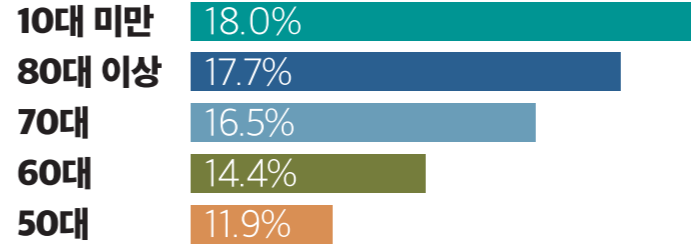
천식 환자의 1인당 연평균 보험자부담금은 7만 7,304원이며, 남성은 6만 9,210원, 여성은 8만 4,060원이다.



남성 6만 9,210원 여성 8만 4,060원

A s t h m a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높을까? 10대 미만



※ 이외 40대(7.3%), 30대(5.6%), 10대(4.5%), 20대(4.2%) 순



남성 10대 미만
22만 97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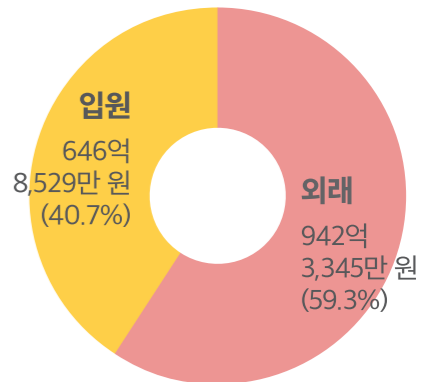
여성 10대 미만
17만 8,972명

환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여성 10대 미만

환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여성 모두 10대 미만이다. 남성은 10대 미만(22만 971명) > 60대(8만 649명) > 70대(7만 2,034명) 순이며, 여성은 10대 미만(17만 8,972명) > 60대(11만 7,470명) > 50대(11만 95명) 순이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총액 비율은? 외래 59.3%, 입원 40.7%

외래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942억 3,345만 원, 입원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646억 8,529만 원이었다.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여성 10대 미만

연령구간별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여성 모두 10대 미만이다.

남성은 10대 미만(74만 3,657명) > 70대(29만 5,189명) > 60대(26만 7,481명) 순이며, 여성은 10대 미만(57만 7,764명) > 70대(39만 6,517명) > 60대(38만 6,927명) 순이다.



남성 10대 미만
74만 3,657명



여성 10대 미만
57만 7,764명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요양기관 종류는? 의원급



보건기관
1만 4,687일



상급종합병원
26만 4,533일



종합병원
56만 6,569일



병원급
66만 4,902일



의원급
319만 2,476일

천식, 완치될 수 있을까?

수년 전부터 봄철이 되면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며 많은 사람이 건강을 염려한다. 미세먼지는 모든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천식 환자에게 기관지 자극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천식의 급성 악화로 이어지므로 더 큰 문제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 천식의 원인과 일상 관리법, 식습관 등을 알아본다.

천식은 어떠한 질병인가?

흔히 천식을 완치되지 않는 병으로 알고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완치라는 것은 몸에 있던 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없어지지 않더라도 조절을 잘해 평생 증상 없이 살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완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후자의 관점으로 보면 천식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완치 가능한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천식은 간헐적으로 기관지가 좁아짐에 따라 숨이 차고 쌉쌉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알레르겐)에 노출되거나 찬 공기, 담배 연기, 매연 등의 비특이적인 자극에 노출돼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서 기관지가 수축해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호흡 곤란 증상 없이 반복해서 기침만 하거나 가슴 답답함 또는 목에 가래가 걸린 듯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천식 증상들은 치료받거나 안정을 취함으로써 정상화될 수 있는 특성을 지녀 주위로부터 꾀병을 피운다는 오해를 받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지만 심한 천식 발작이 생기면 생명까지 위험하므로 응급 및 입원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물론 평소 발작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천식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앓는 질병이다. 사회가 점점 복잡,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많아졌으며, 대기오염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이 많아졌다. 실내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등의 번식이 용이해졌고, 대기오염 중의 아황산가스, 황산화물, 오존 등은 기도의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아울러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섭취와 함께 방부제, 인공감미료, 식용색소 등의 첨가제에 의해서도 천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A s t h m a





천식, 어떻게 관리할까?

천식은 만성적이고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므로 증상을 잘 조절하고 폐 기능을 정상화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 목표다. 천식의 치료에는 원인 물질을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회피요법', 증상을 조절하는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는 '약물요법', 원인 물질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 시행하는 '면역요법'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일반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쉬운 회피요법 위주로 소개한다.

침실 관리 침실에는 양탄자나 두꺼운 커튼을 두지 않고 기구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소재 또는 세탁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먼지가 많이 나는 담요, 의복 등을 벽장 속에 보관하지 않고,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나 공해가 심할 때는 창문을 닫는다. 침대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비닐로 싸서 사용한다.

실내 관리 아이의 장난감은 플라스틱 또는 나무로 만든 제

품을 사용한다. 실내에서 절대로 흡연하지 않고 애완동물은 기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가습기, 에어컨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 중 천식 환자는 집 안에 있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외에도 공기정화기, 가습기와 제습기 등을 적절히 사용해 환경을 개선한다.

식이 요법 과다한 지방질을 섭취하면 위-식도 역류가 증가해 천식 증상이 악화되므로 적당한 식이요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음식물에 첨가된 방부제인 아황산염은 일부 천식 환자에게서 천식 발작 및 전신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한다.

외출 관리 급격한 기온 변화는 천식 발작을 유발하므로 외부 기온이 낮을 때 집 밖으로 나간다면 찬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역시 외출을 삼가며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다.

냉난방 관리 냉방할 때도 선풍기나 냉풍기의 찬바람을 직접 들이마시지 않는다. 난방할 때는 가스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나, 석유 난로처럼 냄새를 유발하는 제품을 피하고 전기 난방기구를 사용한다.

약물 복용 및 예방 접종 아스피린 같은 약물은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약물을 복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 감기나 독감 등에 걸리면 천식 증상이 심해지므로 항상 주의하고 매년 독감 예방 접종 시기가 되면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는다.

운동 관리 공기 오염이 심할 때는 불필요한 운동을 삼가고 호흡기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찬 공기를 직접 마시며 하는 조깅, 축구, 자전거 타기보다는 실내 수영 등을 추천한다.

마음 관리 천식은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받으므로 가능한 심적 여유를 갖고 평온하게 생활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천식 환자이거나 천식 증상이 의심되면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로 천식을 잘 조절한다면 완치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기관지를 건강하게 만드는 밥상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면 천식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잘 알고 피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식품은 땅콩, 우유, 갑각류 등이다.

한편 최근 미세먼지에 의한 천식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미세먼지는 한번 몸에 들어가면 자연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며, 아직 미세먼지를 배출시킨다고 밝혀진 음식이나 약물은 없다. 따라서 유해물질을 희석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몸 안에서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기관지 염증을 낮추는 것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유해물질을 희석하는 식재료 미세먼지 속 유해물질을 희석하고 중화시키려면 평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중금속과 독성 물질 해독을 돕도록 과일과 채소 등을 통해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음식으로 중금속을 완전히 배출할 수는 없지만, 불용성 섬유소가 많은 짙은 채소류, 펙틴 등 수용성 섬유소가 많은 과일류, 점액 다당류 물질이 풍부해서 배설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해조류와 마, 연근 등 뿌리채소 등이 자정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관지 염증 방지를 돕는 식재료 도라지즙, 배즙, 해조류 모두 기관지 건강과 염증 방지에 효과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도라지와 배는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 방지를 돕고 기관지를 포함한 신체의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다만 이러한 폴리페놀 성분은 변색되지 않은 신선한 상태로 먹을 때 효과가 크므로 즙이나 진액보다 생 재료를 그대로 먹는 편이 좋다.

호흡기 면역력을 높이는 식재료 호흡기의 면역력을 올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 뿌리채소류(더덕, 도라지, 인삼 등)가 좋다. 저온으로 오랫동안 서서히 끓여서 물처럼 연하게 꾸준히 먹으면 고온 조리나 고압 추출방식보다 영양성분 손상이 적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상기도 질환에 효과적이다. 세균과 바이러스 저항력을 강화하려면 살코기나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매일 빼놓지 않고 섭취하는 식습관이 필요하다.

몸의 항상성을 돕는 식재료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의 유익한 균을 섭취하면 장 내 유해균의 번식을 막고 장 세포의 건강을 도와 장에서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몸의 항상성이 좋아지면 호흡기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높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 다만 김치의 유산균, 마늘의 알리신 모두 열에 약하므로 가급적 고온 조리는 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요리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식 환자의 건강을 돕는 추천 요리 2종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천식 환자라면 음식을 먹기 전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다음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섭취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최천웅 교수의 도움말을 듣고 천식 환자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 봤다.

구수하고 담백한 두부 강된장 머위 쌈밥

재료

머위 적당량, 파프리카 스틱, 된장 4큰술, 고추장 2큰술, 두부 1/4모, 다진 마늘 1큰술, 양파 1/4개, 대파 10cm, 표고버섯 1개, 현미유, 설탕, 고춧가루 조금, 쌀뜨물 1컵, 굵은 소금 2큰술

요리법

- ① 끓는 물에 적당량의 머위와 굵은 소금, 현미유를 조금 넣고 데친 후 찬물에 씻어서 건진다.
- ② 두부는 소금을 조금 뿌리고 체에 받쳐 물기를 건고 칼등으로 으개 놓는다.

- ③ 양파, 대파, 표고버섯은 잘게 자른다.
- ④ 팬에 현미유를 조금 두르고 준비한 채소들을 가볍게 볶다가 쌀뜨물에 된장과 고추장, 다진 마늘을 넣어 풀고 끓인다.
- ⑤ 한소끔 끓으면 으개 두부를 넣고 자박해질 때까지 중불에서 끓인다.
- ⑥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와 설탕을 더한다.
- ⑦ 불을 끄고 참기름을 두른다.
- ⑧ 데친 머위에 한입 크기 밥과 강된장을 올려 쌈을 만든다.

스타일링

쌈장과 오이, 파프리카 스틱을 보기 좋게 곁들인다.

건강한 별미, 연근전과 연근피클

[연근전]

재료

연근 2개, 물 1/2컵, 달걀 1개, 풋고추 1개, 당근 1/5개, 표고버섯 2개, 부침가루 1/2컵, 소금, 식용유, 초간장 적당량

요리법

- ① 연근은 껍질을 벗긴 뒤 큼직하게 잘라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치고 커터기에 갈릴 정도로 물을 더해 곱게 간다.
- ② 갈아놓은 연근에 부침가루와 달걀을 더해 걸쭉하게 반죽을 만든다.
- ③ 풋고추와 당근을 잘게 썰어 반죽에 더하고 소금으로 간한다.
- ④ 표고버섯은 곱게 채로 썰어서 준비한다.
- 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한입 크기로 반죽을 올리고 채 썬 표고버섯을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부친다.
- ⑥ 초간장을 곁들인다.

[연근피클]

재료

연근 2개, 물 2컵, 식초 1컵, 유자청 1컵, 소금 1/2큰술, 치자 1개

요리법

- ①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3~4mm 두께로 썰어서 끓는 물에 살랑거릴 정도로 데치고 찬물에 담가 식힌 후 체에 받친다.
- ② 절임 물을 냄비에 담고 한소끔 끓으면 바로 불을 끄고 식으면 연근에 붓는다.



기관지 건강을 돕는 식재료

- **채소, 과일:**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중금속과 독성 물질 해독을 돕는다.
- **해조류, 뿌리채소:** 점액 다당류 물질이 풍부해 중금속 배설에 도움이 된다.
- **생선, 두부:** 단백질이 풍부해 세균 및 바이러스 저항력을 강화시킨다.





천식

병원평가정보 알아보기

천식은 외래에서 효과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천식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천식 5차 적정성 평가결과

무엇을 대상으로 평가했나요?

평가대상	대상 기간	2017년 7월 ~ 2018년 6월
	대상 기관	천식 진료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
	대상 환자	평가대상 기간 동안 천식(J45,J46)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15세 이상 환자 - 천식약을 사용한 외래 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 진료와 있고, 천식약을 사용한 외래 진료와 있는 환자

어떤 내용을 평가했나요?

평가내용 천식의 정확한 진단과 향후 치료방향 결정을 위한 **폐기능 검사 시행률**, 증상조절과 급성 악화예방을 위한 주기적 진료를 측정하는 **지속방문 환자비율**, 천식 치료에 중요한 **흡입스테로이드·필수약제 처방 환자비율** 등 3개 영역, 7개 지표가 평가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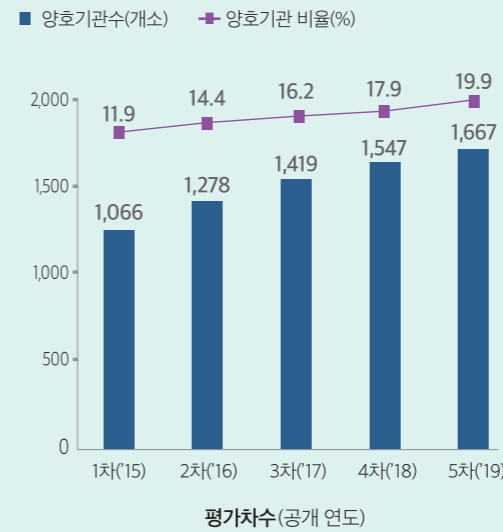
영역	평가지표	지표해석
검사	폐기능검사 시행률	높을수록 좋음
치료지속성	지속방문 환자비율	
처방	ICS 처방 환자 비율	낮을수록 좋음
	필수약제(ICS or LTRA) 처방 환자 비율	
	ICS 없이 LABA 처방 환자 비율	
	ICS 없이 SABA 처방 환자 비율	

주 1. ICS: 흡입스테로이드 2. LTRA: 류코트리엔조절제 3. LABA: 지속성베타2항진제 4. SABA: 속효성베타2항진제
5. OCS: 경구스테로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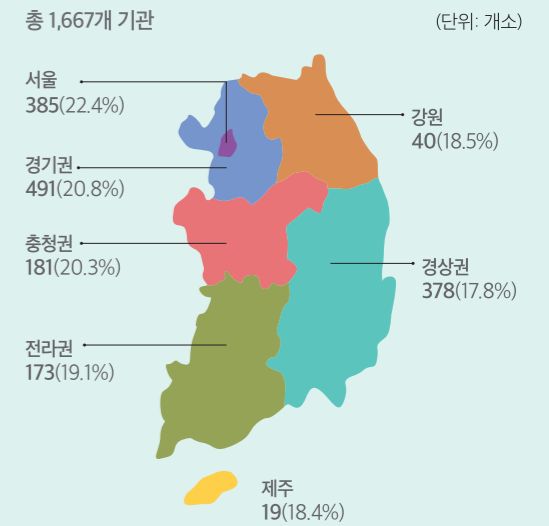
평가결과는 어떻게 공개하나요?

평가결과 천식은 조기에 적절한 외래진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가까운 지역의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공개합니다.

양호기관 현황



양호기관 권역별 분포도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등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평가정보 조회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만성질환 > 천식
- 「건강정보」 모바일 앱 > 병원평가정보 > 만성질환 > 천식





의료기관과 약국의
인력, 시설, 장비 현황을
관리합니다

보건의료자원 관리

보건의료자원이란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인력, 시설, 장비를 말하며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으로부터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신고 받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HIRA 룬아보기

*'룬아보다'는 순우리말로 '살살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 룬아 나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1 의료인력 관리

특정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있는지 입원 환자를 전담하는 간호사는 몇 명인지 등 의료인력의 인원과 자격, 근무현황과 이력을 관리합니다.

2 의료시설 관리

병원에 입원실은 몇 개 인지, 수술실, 응급실이나 물리치료실이 있는지 등 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유지하고 있는지를 관리합니다.

3 의료장비 관리

진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료장비를 등록·관리하고, 2011년 11월부터 23종의 의료장비에 바코드를 부착해 생산·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4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3년 주기로 평가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합니다.

*지정 현황: 제3기(2018.1.1.~2020.12.31.) 전국 42개 의료기관

5 전문병원 지정 평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 20개 분야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3년 주기로 평가하여 전문병원으로 지정합니다.

*지정 현황: 제3기(2018.1.1.~2020.12.31.) 전국 108개 의료기관

지정 분야

구분	의과(17)	한방(3)
질환(12)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진료과목(8)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6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약국 찾기
- 「건강정보」 모바일 앱 >> 병원·약국 찾기 >> 병원 조건 검색



현장 소통 강화로 실효적 건강 증진 도모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 광주지원 직원들 사이에서 자주 쓰는 말이다. 지역 특성 맞춤형 현장중심 사업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광주지원의 기분 좋은 고집을 확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청렴도 향상 주력할 것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설립 기념식 연설에서 그 유명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마따나 정부, 나아가 공공기관의 가치는 국민에게서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이하 광주지원)은 지난해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각종 국민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인 만큼 투명한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윤순희 광주지원장은 “334만 광주·전남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더 강력하고 청렴한 운영기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광주지원의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감성교류에 기반한 소통방식 전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윗사람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발 먼저 길을 걸어온 윤 지원장과 여러 부서장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직원과의 소통방식에 대해 고심한 끝에 기존의 면담이 아닌 티-타임을 기본으로 한 가벼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보다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누구나 익명으로 의견을 전할 수 있는 건의함을 만들었다.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 식 소통’이 아닌 현재 직원들이 직접 겪는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방증인 셈이다.

윤 지원장은 “다각적인 방향에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각각 단기와 중·장기적 문제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다”라며 “지금까지 접수된 20개의 업무 및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 100%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만족감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때로는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의 환경과 업무 시스템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기관과의 소통에 아웃바운드 방식을 적용한 것 또한 실효적 측면을 강조하는 광주지원의 운영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먼저 적극적으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만남을 시도함으



로써 선제적 관리체계의 새로운 모델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윤 지원장은 “지역 특성 맞춤형 현장중심 사업을 통해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청구유류 사전점검 서비스 운영 확대, 의료인력 입원내역 현황관리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의료기관과 더불어 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반부패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자원 현지 확인 단계별 점검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한방병원 전략적 심사로 선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은 현장에 있다! 맞춤형 현장 중심 소통

광주와 전남 지역 334만여 명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광주지원은 약 6,200개 요양기관을 관할한다.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긍정적인 의료 환경 개선을 실현함으로써 주민 건강 증진을 추구해야 하는 광주지원은 무엇보다 ‘현장과의 만남’을 강조한다.

윤 지원장은 “각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개별 문제점에 대해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개



별 종합병원에 대한 청구와 심사 분석정보를 비롯해 민원제기와 처리 방향,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정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포괄수가제도, 기획 현지조사 항목 등 관련 정보의 공유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지원은 신규 개설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한 광주지원은 올해 타 종별로 범주를 넓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의 협업을 활성화해 「정부-지자체-의료기관」의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현장 중심의 소통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윤 지원장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을 자주 쓴다"라며 "의료기관과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한편 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돕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효율적 행정 절차 간소화, 실질적 국민 건강 증진 도모

올해 광주지원의 업무방향은 '효율성'이란 단어로 압축된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는 효율적 의료시스템 정착의 첫 행보로 올해는 이를 더욱 심화시킨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고객지원부와 심사평가부의 협업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향상·이의신청 감소의 양방향 추진을 꿈꿀 수 있다. 사전점검서비스 현황 분석 및 이의신청 다발생기관의 원

인을 확인해 사례별로 맞춤형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심사평가 체계 전환 대비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같은 맥락이다. 진료경향 종합분석 전담직원지정·운영과 요양기관 담당제 선도 사업을 도입해 실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윤 지원장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대와 예산 절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라며 "이렇게 확보된 여력을 다른 곳에 투입한다면 가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광주지원의 청사진은 선명하다. 철저히 실무적 측면에서의 혁신과 개선을 기반으로 실질적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않고 현장과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실효적 혁신을 이끄는 광주지원의 추진력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Mini Interview

‘부정·부패 제로(Zero), 직원 만족이 곧 고객 만족이다’

광주지원의 가장 큰 자랑스러운 점은 부정·부패가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업무환경 개선에 주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덩달아 고객 만족도 역시 1년 만에 3계단이나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환경 및 애로사항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순희** 광주지원장



‘지역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할 것’

오래도록 의료기관에 몸담고 있었기에 지원과 의료기관의 협조와 유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광주지원의 심사와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수** 지역심사평가위원장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은 우리가 지킨다’

한 명의 광주 시민으로서 같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광주지원의 사명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맞춤형 정보 제공을 비롯해 의료계와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요양기관이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인화** 심사평가부 차장



‘투명한 진료비 심사로 국민 신뢰도 제고’

관할 지역 병원과 의원에서 청구된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는 그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의료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심사체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위험요인의 적절한 관리로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은영** 심사평가부 과장



‘새로운 적정 진료비 청구 공조 체계 구축할 것’

광주지원은 최근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확대하고자 시·군·구로 세분화된 지역분회 단위로 현장을 방문하고 면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시·심사기준 변경 내용, 심사사례, 부적정 진료비 청구사례 등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진료비 청구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김학송 고객지원부 과장



축구동호회, ‘초대 챔피언의 영광 되찾을 것!’

제18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축구대회 현장 속으로

지난 4월 20일, 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제18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축구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의료계 단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14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특히 초대 우승을 시작으로 내리 3연패를 달성했지만, 이후 성적이 저조했던 심평원 축구동호회의 자세는 남달랐다. 기본 좋은 땀방울이 가득했던 녹색 그라운드에서의 하루를 기록한다.

보건의약계 축구인을 위한 축제의 장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처음 열린 한마음축구대회가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미세먼지로 답답했던 하늘이 거짓말처럼 깨끗해진 봄의 한복판에서 심평원 축구동호회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기관 축구팀이 참석한 한마음축구대회가 활기차게 개최됐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들과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고 즐겁게 대회를 즐겼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개회사에 이어 백혈병을 앓는 환아를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이 전달됐다. 참석자 모두 한 마음으로 환아의 완치를 기

원하는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김현두 청렴문화기획단 주임의 대표 선서를 끝으로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다. 첫 경기는 작년 2부 리그(우승팀)에서 올라온 아주대학교 병원과 맞붙었다. 최근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던 심평원 축구동호회 구성원들은 바쁜 일정에도 틈틈이 훈련을 거듭하며 이번 대회를 준비한 만큼 다부진 각오를 보였다. 축구동호회장을 맡은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강한 승부욕은 기본이다”라며 “전력상 우리 팀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심평원 측의 매서운 공격이 시작됐다. 지난 수개월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거친 덕분인지 제법 짜임새 있는 경기를 펼쳤다.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빛나간 헤딩슛과 날카로운 크로스플레이스는 우승을 노리는 상대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하지만 정작 첫 골은 상대팀에서 나왔다. 심평원 측의 패스 실수에서 이어진 속공이 결국 골로 연결됐다. 아쉬운 장면이었지만 팀원들은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다. 그저 박수로 사기를 돋우고자 노력했을 뿐이다. 그렇다. 축구야말로 팀 경기에 적합한 스포츠인 것이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경기는 일진일퇴를 이어갔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부족한 심평원은 거푸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미 승패의 추가 상당히 기운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라운드 위 선수들의 투지는 여전히 뜨거웠다. 마지막까지 기력을 짜낸 선수들은 결국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를 자처한 이는 이진형 의정부지원 고객센터원부 과장이었다. 이제 중년을 훌쩍 넘기긴 했지만 심평원 축구동호회를 이끌었던 에이스의 실력은 건재했다. 골대 구석을 찌르는 날카로운 슈트로 이번 대회 첫 골을 성공한 것이다. 백 실장은 “좋은 경기력에도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다”라며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필승의 의지’로 그라운드에 나서겠다”라는 다짐을 건넸다.

점심 식사 이후 오후 경기가 치러지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안타깝지만 심평원 축구동호회는 다음 대회부터 2부 리그에 참석하게 됐다. 경기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던 까닭이다. 물론 승패의 가름이 아닌 친목과 화합을 주제로 열린 축제의 장에서 성적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선수들의 승부욕’이 이를 용납할 수 없을 뿐이다.

백 실장은 “흔히 ‘지고서 속 좋은 사람은 없다’는 말마따나 회원들 역시 이번 결과에 적잖이 실망했음은 분명하다”라며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축구동호회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체계적인 트레이닝 매뉴얼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1부 리그 복귀, 대회 우승이라는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심평원 축구동호회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축구동호회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초대 우승에 빛나는 심평원 축구동호회가 다시 한번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날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사전점검으로 정확한 진료비 청구하세요

수원 월스기념병원,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참여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청구 전 내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면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의신청 예방도 가능한 제도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활용 우수 기관인 수원 월스기념병원을 찾아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다.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2002년 개원한 수원 월스기념병원(이하 월스기념병원)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3회 연속 보건복지부지정 ‘척추전문 병원’으로 선정된 곳이다.

“척추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 전문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분들의 신뢰도가 높지요.” 척추전문병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김지혁 행정원장의 말이다.

월스기념병원은 환자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자세는 다양한 성과로 이어졌다. 국내 척추전문병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2013년 7월부터 시

행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현재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 등이 그 사례다. 또한, 시범사업이나 인증 의료기관 획득 외에 우수 의료기술 교류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월스기념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최소침습 척추수술 트레이닝 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한 해 약 20~30명의 해외 의료진이 본원의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지요. 외국 환자들의 방문 또한 매년 늘고 있기에 다양한 언어 통역이 가능한 전담 코디네이터 4명이 상주하여 진료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신고 항목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심평원으로부터 조정이나 불능 처리를 받으면 그만큼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신고 누락이 되면 다시 신고하고 보완 청구하는 동안 다른 업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게다가 그 치료재료가 고가인 경우에는 청구 금액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팀장이 말을 이었다. “손해를 막고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병원 입장에서는 좋은 점만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류가 뜬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이 필요한 만큼 무한대로 검사한다 해도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모든 기록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청구 현황 모니터링 카테고리를 활용하면 본원의 다발생 심사조정 및 심사 불능건, 심사조정 추이 현황 파악 등을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익월 심사 및 진료비 청구에도 반영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토록 좋은 서비스를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위해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덕에 윌스기념병원은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삭감률 0%라는 성과를 매년 달성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적정 진료, 적정 청구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환자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부적절한 진료 청구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진료비 심사 자체는 의무 사항이에요. 하지만 청구오류 사전점검 자체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한 번에 올바른 진료비를 수납하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뤄져야 할 올바른 수납을 위해, 우리 병원이 진행하는 노력 중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여러모로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의 사용률은 아쉽게도 100%가 아니다. 현재 병원 급은 50%, 의원 급은 10%만 해당 서비스를 활용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전문 청구 담당자가 없다는 데 있다. 일반 인력이 청구 업무를 하다 보니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 하는 것이다.

“사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 심평원 측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경희 팀장이 의료계와 심평원 측에 전하는 한 마디였다.

발전하는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윌스기념병원이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알게 된 계기 또한 심평원의 홍보 덕분이었다. 이후 실제 활용과 교육을 반복하면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다. 물론 심평원의 노력 또한 한몫하고 있다.

“모두 잘 입력했다고 생각해도 청구오류가 뜰 때가 있어요. 발생 내역에 심사조정 사유코드 및 조정 사유가 안내돼 있긴 하지만 이해되지 않거나 세부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심평원에 연락을 드리면 응대를 잘해 주세요. 전화 대기 시간도 길지 않고요.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스템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점도 한몫을 했다. “사실 시스템 활용 초기에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드백이 바로 와야 당일 청구 완료를 끝내는데 기다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30분 이내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시스템이 더욱더 빨라진 것 같아요. 많은 요양기관이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편의성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적극적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는 윌스기념병원은 본 청구 오류 발생 0%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방면으로 꾸준히 노력한 만큼 발전의 폭도 크다. 개원 당시 기병상이었던 병원 규모는 한 차례 증축을 통해 현재 145병상이 됐으며, 3차 도약을 위해 두 번째 증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정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도입에 앞장서는 태도가 한몫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이어져 있다.

병원을 위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직접 써보면 편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에 대해 말하는 이경희 진료비관리부 팀장의 말이다. “의료비 청구라는 것이 굉장히 세세하게 챙겨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병원이 척추 전문병원이라 기본적으로 치료재료가 다양해요. 입고되는 치료재료들을 매일 신고하는데도 완벽히 챙기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딱 필요로 하는 항목을 운영하여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수시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를 통해 청구오류를 점검하여 수정 후 실제 청구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사전점검 서비스를 통해 청구오류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유도한다.



치과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장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치과 부문 보장성도 확대되며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치과 부문 중 보험 적용 필요성이 시급했던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급여전환에 대해 살핀다.

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지난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 방법

그간 국민 대부분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대폭 줄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 2,000원 가량(치과의원기준,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 1,200원~9만 1,400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아 1개당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 ('18.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본인부담금 (치과의원 기준, 단위: 원)

구분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	치료비용 총액*	환자 본인부담금**
1면	53,580	81,267	24,300
2면	58,020	86,373	25,900
3면 이상	62,450	91,468	27,400

* 초진진찰료, 치근단촬영, 침윤마취, 종별 가산 적용 금액 ** 치과의원 외래진료 기준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구순구개열의 치아교정 급여전환

건강보험 '14년~'18년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 환자들에게 치아교정(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지난 3월 25일부터 적용됐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받아야 하지만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컸다. 그간, 구순열(입술 갈라짐)과 구개열(입천장 갈라짐)에 대한 수술치료 및 잔존하는 흉터 등에 대한 반흔교정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교정 치료비는 전액 환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잇몸 갈라짐),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으로 등록된 자(구순열만 있는 경우 제외)라면 본인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천 5백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약 730만 원~1,8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 11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기준
(강희정 외(2016), 「구순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급여적용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치과병원 외래진료 기준

구순구개열의 치아교정 치료의 행위 분류는 성장단계별 분류와 급여관리 측면을 고려해 6개 치료(7개 행위 분류*)와 각 치료별 세부 진료내용으로 나뉜다.

6개 치료 분류

치료명	시술 목적
술전유아악정형장치 치료	코, 윗입술, 치조골, 구개부위의 변형이 발생한 경우, 상순봉합술을 시행받기 전 변형된 조직 재위치 및 대칭적인 성장 유도
악궁확장 교정치료	봉합수술 후 발생한 흉터의 영향으로 상악궁 발달이 저해된 경우, 반대교합 해소 및 영구치의 공간 확보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상악 영구 앞니 맹출 시 발생하는 파열부위 인접한 치아의 위치 이상 등을 해소하거나, 치조골 이식술 이식부위로 매복된 치아의 맹출을 적절히 유도
악정형 교정치료	흉터로 인하여 상악골의 전방 성장이 제한되는 것을 개선하여 상·하악골의 성장 부조화 완화
성장관찰	흉터로 인하여 비정상적 교합 발생률이 높아, 성장이 완료되기까지* 악골의 성장량과 성장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시기 결정 * 성장관찰 시기: 1) 구개열 수술 이후 2) 악정형 교정치료 후 3) 성장완료 전 골신장술이나 악교정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1) 골격 부조화가 심하지 않을 경우, 골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치아이동만으로 적절하게 교합 달성 2) 골격 부조화가 심한 경우, 골신장술 또는 악교정수술을 통하여 악골을 정상 위치로 재위치 시키고 기능교합을 달성

* 6개 치료 외에 치조골 이식 후 치아 위치, 악궁 등을 유지 목적의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제작'은 악궁확장 교정치료와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중 실시 가능하여 별도 행위로 분류

수채화 같은 감성에 물들다, 비에 담긴 풍경

비의 계절이 돌아왔다.

후드득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물안개 자욱한 풍경 속을 걷다 보면 다른 세상에 초대받아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대중문화 속 '비'는 어떤 모습일까? 감독이나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별, 쓸쓸함, 낭만, 갈등 해소 등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상징한다. 크로마토그래피처럼 우리의 감성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이는 '비', 지금 마중한다.



영화 특특(Talk-Talk)

빗속에서 피어난 로맨스 명장면



영원히 박제된 사랑의 노래

사랑은 비를 타고

뮤지컬 | 103분 | 전체 관람가

감독 스탠리 도넌, 진 켈리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계 최고의 스타 돈 록우드는 신작 <결투하는 기사>의 성공을 자신하던 중, 최초의 뮤지컬 영화인 <재즈 싱어>가 대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위기를 느낀다. 결국 돈과 제작사는 <결투하는 기사>를 뮤지컬로 바꾸기로 결정하지만 상대 배우인 린다 라몬트의 목소리와 발성 연기는 너무 형편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뮤지컬로 바뀐 <결투하는 기사> 시사회가 열리고, 관객들은 조악한 영화와 린다의 목소리에 크게 실망한다. 이때 연극배우를 꿈꾸는 케이시가 구세주가 된다. 파티장에서 우연히 만난 케이시가 자신의 목소리를 영화에 입히자는 돈의 제안을 흔쾌히 허락한 것이다. 케이시가 돈의 제안을 허락한 날 밤, 폭우 속에서 돈은 케이시를 집까지 배려다주고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 케이시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 갑자기 찾아온 소나기처럼 흠뻑 젖게 만든 사랑. 돈은 우산도 접어둔 채 영화의 주제곡 'Singing in the Rain' 부르며 신나는 춤사위를 펼친다. 비가 오는 거리에서 발장단에 맞춰 물장구치며 사랑을 노래하던 돈은 뒤늦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깨닫고 황급히 자리를 떠난다.

비와 로맨틱 지수



어른들의 수채화 같은 풋풋하고 애절한 사랑

8월의 크리스마스

로맨스 | 97분 | 15세 관람가

감독 허진호

초원사진관의 사진사 정원은 불치병 판정을 받고 매일 약을 먹으며 살아가는 남자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다가온다. 불법주차 단속원 다림이다. 그녀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사진관 앞에 와서 주차위반 차량을 촬영하고 현상을 맡긴다. 단속 중에 일어난 일들을 털어놓는 다림이 정원은 마냥 예쁘고 사랑스럽다. 하지만 하루하루 죽음에 다가서는 정원은 다림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가 부담스럽다. 반면 다림은 사랑 앞에 당돌하다. 하지 않던 화장을 하고 초원사진관에 오는가 하면, 슬쩍슬쩍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며 정원을 흔들여 놓는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두 사람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러다 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명장면이 등장한다. 바로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빗속 장면이다. 비를 흠뻑 맞으며 걸어가는 정원을 발견한 다림은 슬쩍 우산을 씌워주며 다가간다. 다림은 자신의 어깨가 젖는데도 우산을 정원 쪽으로 기울인다. 이를 눈치챈 정원은 다시 우산을 다림 쪽으로 기울이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가까이에서 느낀다.

비와 로맨틱 지수



영화 토크(Talk-Talk)

캔버스 속으로 들어온 비 오는 거리 풍경



19세기 비 오는 파리의 거리를 걷다

파리의 거리; 비오는 날

구스타브 카유보트

<파리의 거리; 비오는 날(Paris Street; Rainy Day)>, 캔버스에 유채, 1877년, 212.2x176.2cm,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물에 젖어 반짝이는 거리와 회색빛 하늘, 그리고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도로에 고인 빗물 등 비 오는 날 파리의 거리를 사실적으로 담은 <파리의 거리; 비오는 날>.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 프랑스 파리의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리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구스타브 카유보트의 대표작이다. 마치 사진과도 같은 정확한 원근법으로 당시의 도시 풍경을 표현한 명작으로 손꼽힌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빗물 위를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잔잔하게 울리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남녀 한 쌍이 우산을 나눠 쓴 채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비와 로맨틱 지수 ★★★★★



캔버스를 촉촉하게 적신 빗물

보스턴, 비오는 날

프레드릭 차일드 하삼

<보스턴, 비오는 날(Rainy Day, Boston)>, 캔버스에 유채, 1885년, 66.3x122cm, 트레도 미술관

프레드릭 차일드 하삼의 <보스턴, 비 오는 날>은 구성과 표현기법 등 여러 면에서 카유보트의 그림과 비교된다. 실제 그는 1883년부터 1889년에 파리의 쥘리앵 아카데미에 입학해 색채와 빛에 대한 유럽 인상파 화풍을 익혔다. 카유보트의 그림과 비교하면 그는 그림 중앙에 우산을 든 사람들 대신 도로에 내린 비의 느낌을 보다 강조하며 시원스럽게 비워놓았다. 또한 쏟아지는 빗속 풍경처럼 시야가 흐리다. 이는 캔버스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하삼은 <보스턴, 비 오는 날> 외에도 '비오는 풍경'을 소재로 미국 도시인의 다양한 삶을 때로는 감상적으로, 때로는 치열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비와 로맨틱 지수 ★★★★★

도서 토크(Talk-Talk)

비의 서정을 농축된 언어로 풀어내다



한국 사랑 시의 영원한 고전

접시꽃 당신

도종환 지음 실천문학사 펴냄

<접시꽃 당신>은 도종환이 접시꽃같이 소박하고 지순한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의 회한과 비탄을 담아낸 시집이다. 한국 사랑 시의 고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집은 1986년 초판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시어 속에 흐르는 눈물의 서정과 진솔한 표현, 시인 특유의 가락이 더해져 큰 감동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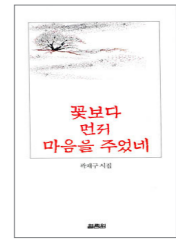
...(전략)...

혼자 가는 길 위에
비가 내리나 나는 외롭지 않고
대관 젖어 잇을 뿐이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잊어도
나는 당신을 가리는 우산이고 싶다
언제나 하나의 우산 속에 있고 싶다.

도종환, '우산' 중에서

비와 로맨틱 지수 ★★★★★



그리움과 기다림의 서정

꽃보다 먼저 마음을 주었네

곽재구 지음 열림원 펴냄

<꽃보다 먼저 마음을 주었네>는 곽재구 시인이 섬진강변 한 작은 마을에 머물며 쓴 시를 엮은 시집이다. 시집 속에서 사람과 자연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룬다. 그 따뜻한 서정이 시집 곳곳에 녹아 있다. 특히 33편에 이르는 <연화리 시편> 연작은 그리움과 기다림의 감정을 농축해 펼쳐낸다.

전을 무렵
소나기를 만난 사람들로
알지
누르기가 고르지하며
미루나무 아래 앉아 다리힘을 허다가
그때 쏟아지는 소나기를 바라본
사람들은 알지
...(후략)...

곽재구, '소나기-연화리 시편 25' 중에서

비와 로맨틱 지수 ★★★★★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맞이한 고즈넉한 봄

소백산 자락에 있는 경상북도 최북단의 도시. 영주시는 고고한 선비의 기상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 우리나라 목조건물의 시초로 불리는 무량수전을 품은 부석사와 영주 선비문화의 정수가 모인 소수서원과 선비촌, 물 위에 떠 있는 섬이란 뜻을 지닌 무섬마을 등 오랜 역사를 간직한 명소가 즐비하다. 선비의 고장에서 맞는 한가로운 봄의 풍경을 전한다.



부석사 100% 즐기기,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2012년 입사 동기인 유혜영 과장과 손수정 과장의 인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욱 특별해졌다. 몇 년 전 결혼한 유 과장의 남편 직장이 바로 손 과장의 고향인 영주였던 까닭이다. 유 과장은 서울사무소 근무, 손 과장은 수원지원 근무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지만, 여전히 동료들 사이에서 '짜꿍'으로 불릴 정도로 가깝게 지낸다. 유 과장은 "둘 다 영주에 자주 가지만, 정작 영주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은 없다"라며 "오늘만큼은 오롯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여행에 앞서 마음을 밝혔다. 일상에서 느끼는 봄과 달리 조금 더 특별한 봄날을 맞이 위해 서일까. 제법 낮은 기온의 날씨에도 두 사람은 조금 가볍고 화사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이번 봄나들이에 대한 지기가 엿보였다. 두 사람이 처음 향한 목적지는 영주 최고의 역사적 명소인 부석사였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부석사는 그 유명한 국보 제18호 '무량수전'을 비롯해 국보 5점, 보물 6점을 보유한 국내에서 손꼽히는 사찰 중 하나다. 손 과장은 "평생을 영주에서 살았지만 부석사가 이렇게 훌륭한 풍광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라며 "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두터워짐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석사의 풍광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식은 끝까지 인내하기다. 부석사 무량수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벼락 맞은 나무가 서 있는 일주문을 지나 경사가 제법 가파른 산길과 계단

을 따라 약 20분의 등반을 감수해야 한다. 요즘 같이 낮 기온이 20도를 오르내릴 때면 옷이 땀으로 젖을 정도다. 이처럼 힘겨운 산행을 하면 오래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무량수전에 도착할 때까지 돌아보지 않을 것을 권한다. 인고의 시간을 거친 끝에 맞보는 과실의 달콤함을 느끼기 위해서다. 부석사 무량수전에 도착한 후 비로소 뒤를 돌아보면 웅장한 목조건물과 어우러지는 수려한 봉황산의 풍광이 두 눈을 가득 채운다.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신선의 집 앞 풍경을 즐기는 느낌이다. 유 과장은 "그동안 꽤 많은 사찰을 방문했지만 이러한 장관을 품은 곳은 없었다"라며 "한국 사찰 문화의 진수를 느끼고 싶다면 단언컨대 영주 부석사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부석사 방문을 강력 추천했다.

옛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100년 역사를 가슴 가득 품다

부석사의 장엄한 풍경은 두 사람의 떠남을 쉬이 허락하지 않았다. 유 과장과 손 과장은 다음 목적지로의 행보가 사뭇 아쉬운 듯 매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수시로 걸음을 멈추곤 했다.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재촉하며 향한 다음 목적지는 아직 벚꽃이 지지않고 흐드러진 선비촌과 소수서원이었다. 조선시대 선비마을을 그대로 재현한 선비촌과 민족교육의 산실로 평가받는 소수서원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



금까지도 우리네 선조들의 숨결이 진하게 남아있다. 곳곳에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벗 삼아 과거 선조들이 수학했을 학당과 풍류를 즐겼을 누각, 옛 향취 가득한 한옥 등을 둘러보던 두 사람은 한 초가집 뒷마루에 앉아 잠시 망중한을 즐기기도 했다.

손 과정은 “정문을 기점으로 마치 시간이 나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라며 “다른 한옥마을의 인위적인 구조와 달리 정말 조선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 내내 이어진 일정에 훌쩍해진 뱃속을 달랠 메뉴는 하

얀 감자탕이었다. 지상파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극찬을 받은 하얀 감자탕은 담백한 맛과 푸짐한 재료로 최근 영주에서 인기가 높다. 평소에 빨간 감자탕만 접했던 이유로 당황스러움도 잠시, 맑은 감자탕의 국물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두 사람이 향한 마지막 장소는 350여년 역사를 자랑하며, 물위에 떠 있는 섬이란 뜻을 지닌 무섬마을이다. 마을 주변을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과 서천이 휘돌아 흐르는 대표적인 물동마을인 무섬마을은 100년이 넘는 역사의 전통가옥이 16채나 남아있을 만큼 옛 모습이 잘 간직돼 있다. 또한 건넌마을을 오가는 다소 아찔한 외나무다리도 무섬마을의 상징으로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물로 유명하다.

유 과정은 “영주의 아름다움에 다시한번 매료되었다. 앞으로도 새로운 명소 탐방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라져가는 옛 것에 대한 소중함은 정작 그것을 잃은 후에야 깨닫기 마련이다. 여전히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영주의 가치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Mini Interview



손수정
과정

유혜영
과정

‘동기와 함께 힐링여행’

주말부부인 저는 영주에 자주 내려갑니다. 처음엔 낯선 고장이었지만 지금은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영주의 자연과 문화유산들이 주는 고즈넉함과 아름다움이 마음을 힐링하게 해줍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수정이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유혜영 과정(심사관리실 이의신청부)

‘내 고향 영주에 대한 자부심이 쑥!’

가장 친한 동기 혜영이와 영주 여행을 함께하면서 또 하나의 둘만의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보며 다시금 영주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영주 여행에 관해 묻는다면 자신 있게 추천할 것입니다.

손수정 과정(수원지원 심사평가2부)



영주의 맛과 멋 그리고 향기



부석사 & 무량수전

우리나라 목조건물의 시초로 불리는 무량수전을 품고 있는 부석사는 자연과 가장 잘 어우러진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676년(신라 문무왕 16) 2월에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창건한 뒤, 화엄종의 중심 사찰로 삼았으며, 경내에는 무량수전, 조사당, 소조여래좌상, 조사당 벽화, 무량수전 앞 석등 등 국보와 다양한 문화재가 있다.

-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 054-633-3464



소수서원 & 선비촌

오랜 역사와 문화, 선조들의 학문과 전통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소수서원과 선비촌은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선비 문화의 산실로 불리는 소수서원과 조선시대의 선비와 상민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선비촌에서는 조상들의 숨결을 진하게 느낄 수 있다.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강학당 / 054-639-5852 (소수서원)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96 / 054-638-6444 (선비촌)



무섬마을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줄기에는 강물이 산에 막혀 물들이 지형을 만들어 낸 곳이 여럿 있다.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도 그 가운데 하나다. 350여년 역사를 지닌 무섬마을은 외부와 마을을 잇는 외나무다리에서 시작된다. 마치 뱀처럼 통나무가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외나무다리를 건널 때면 제법 아찔한 기분이 느껴질 정도다.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 054-634-0040



명동감자탕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등장한 하얀 감자탕으로 유명한 영주의 떠오르는 맛집. 맑은 감자탕의 매력적인 맛에 직접 담근 깍두기와 배추김치를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고기, 알이 굵은 감자까지 삼박자가 완벽하다.

-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106번길 8 / 054-635-7235



걱정 속에 갇힌 나, 범불안장애?

최근 걱정이 많으며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런데 걱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작은 걱정거리라는 나름의 쓸모가 있다. 걱정할 수 있기에 위험을 대비하고 조심할 수 있다. 작은 걱정을 해결하려고 매달리며 큰 걱정을 잊기도 한다. 하지만 삶의 모든 요소가 그렇듯 걱정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

수시로 걱정거리를 꺼내 보는 사람의 특징

사람 대부분 걱정거리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정도가 지나칠 때다. 이 경우 신경이 분산돼 정작 중요한 일에 대비할 수 없게 된다. 걱정에 사로잡혀 우왕좌왕 하다 보면 반복해서 실수하고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도 지나치게 걱정하면,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런 경우를 진단명으로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라고 한다. 이렇게 매사에 걱정인 경우 흔히 하는 말로 과잉근심증후군 또는 램프 증후군이라고 한다. 램프 증후군은 알라딘의 램프가 환상을 현실 가능하게 만든 것에 빗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계속 걱정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우선 타고난 기질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뇌의 편도는 공포를 관할한다. 예민한 편도를 지닌 이들은 작은 일에도 불안해한다. 뭔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주로 전두엽에서 행한다. 그런데 생각은 많고 결정은 못 하는 성향을 지닌 경우 신경증적 성향이라고 한다. 즉 불안 수준이 높고 생각이 많은 경우 과잉근심증후군이 될 수 있다. 자라난 환경도 관여한다. 어려서 가정폭력에 노출돼 두려움에 떨었던 경험이 있거나 사고로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은 이는 성장해서도 작은 일에 불안할 수 있다. 성인이 돼서도 절도나 상해 같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들은 걱정이 더 심하다. 현재 상황도 중요한 변수다. 현재 처한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걱정도 더해진다. 과잉근심증후군 혹은 램프증후군을 앓는 당사자들은 외부의 걱정거리 때문에 자신이 걱정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 누구에게는 걱정거리가 되고 누구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똑같은 일이라도 자신이 여러 일로 힘들 때는 걱정거리가 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걱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걱정을 덜 하려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신의 마음도 일정 부분 고쳐먹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을 바라보자.

강박증이 있으면 조금만 지저분한 것을 접해도 감염이 될까 봐 손을 또 씻고 또 씻게 된다. 집에 손님들이 온다고 하면 손님들이 간 후 밤새 쓸고 닦을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공황발작, 폐쇄공포증, 우울증도 무엇을 왜 걱정하느냐만 다를 뿐 걱정한다는 사실은 같다. 이처럼 마음이 문제인 경우 피해도 끝이 없다. 오히려 피할수록 약해진다. 과거에는 견딜만한 걱정거리가 점점 더 큰 걱정거리로 느껴진다. 그러므로 걱정거리를 타지기 전에 마음을 바라보고 더는 물러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걱정을 부채질하는 감정을 조절하자.

자신이 뭘 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히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게 된다.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변하기 마련인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나쁜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걱정이 계속된다. 이런 경우 절망감 자체를 떨쳐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걱정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슬픔, 분노, 짜증, 외로움, 억울함, 배신감, 굴욕감, 당혹스러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자.

일이 과다해 다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면, 주어지는 일을 줄이지 않는 한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일이 줄게 되면 수입도 줄어든다. 걱정된다면 차라리 지출을 줄이는 게 낫다. 걱정하는 대신 걱정을 만드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건강에 대한 걱정 대신,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고,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치료하며 관리하자.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과는 심리적 거리를 두자.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당신이 추구하는 일이 실패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의 불행을 원한다.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걱정을 부추기는 사람을 피해야 한다. 아울러 계속 문제를 일으켜 걱정거리를 주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사고를 처리해주고 뒤를 봐주는 한 당사자는 바뀌지 않는다. 당사자가 자신의 일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당신을 이용하고 피해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HIRA News



2019 고객만족 부문 국가산업대상 수상(4.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18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고객만족 부문 국가산업대상을 수상했다.

김승택 원장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 후원하는 '2019 국가산업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국민, 요양기관 등 모든 고객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세계적인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향후 업무 의지를 밝혔다.



제9회 건강플러스 행복캠프(4.18.~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희귀난치질환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제9회 건강플러스 행복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17가족 53명이 참여했으며, 건강 기원 나무 심기, 목장체험,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진행됐다.

건강플러스 행복캠프는 희귀난치질환으로 장기간 투병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행사이며, 심평원 임직원이 모금한 성금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사우디아라비아 건강보험구매청 협약 체결(4.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24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건강보험구매청과 보건 의료 협력 합의서(FOC)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타우피그 알 라비아(Dr.Tawfig AlRabiah) 사우디 보건부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 성과이다.



양훈식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취임(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7일, 본원 대강당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양훈식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중앙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 단장 등을 역임했다.

양 위원장은 2019년 5월 2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2년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봉사(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8일, 강원도 고성군(토성면 원암리) 산불피해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하여 피해 농민들의 생업재개에 힘을 실어주고자 모판 만들기 등 일손 돕기에 임직원들이 참여한 것이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개발사업이사는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산불피해 지역 농산물 구매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피해 농민들과 함께하는 상생경영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자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심사평가원-지자체 합동 워크숍 개최(5.9.~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보건의료자원 관리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료자원 관리 주체간 실무 소통을 통해 의료자원 신고방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고일원화 제도의 이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사용 방법 ▲시도·새울행정시스템(지자체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허가)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LETTER
독자의 편지

<우리 지역 심평원> 코너에 의정부지원이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경기북부에서 일하는 만큼 통화했던 과장님도 사진으로 보며 반갑기도 하였고, 자리 잡기까지 쏟은 많은 노력과 수고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양기관도 변화된 환경에 혼란스러웠으나, 선생님들의 많은 노고로 빠르게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기 고양시 조윤영 님 -

'환자를 위해 의료질 향상에 팔을 걷어붙이다' <건강한 동행> 코너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일반인들은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개선되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QI 컨설팅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네요. 그리고 심평원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병원과 심평원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 좋네요. 보다 많은 병원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 경남 김해시 신희영 님 -

몇 년 전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받으신 적이 있는데 증상이 나타날 때도 두통으로 머리가 자꾸 아프시다고 약만 드시다가 갑자기 마비 증상이 심해져 급하게 119를 불러서 대학병원으로 가 수술했던 끔찍했던 기억이 있네요. 글을 읽으며 예방과 생활습관에 대해 배우게 돼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왜 진작 관리를 못 시켜드렸나 죄송하기도 하네요. 추천해주시는 요리 보고 꼭 해드리려고 합니다.

- 광주시 동구 오인애 님 -

CONGRATULATION
당첨을 축하합니다

2019년도 3·4월호 독자엽서 당첨자

강미소(경남 진주시), 구대홍(서울시 송파구), 김보미(전북 익산시), 김용복(대전시 서구), 나현정(부산시 금정구), 박용혁(경기 용인시), 박태규(인천시 연수구), 신희영(경남 김해시), 오인애(광주시 동구), 유주혁(서울시 성동구), 유태경(서울시 강남구), 이대호(경기도 파주시), 이소연(경기 시흥시), 이정노(충남 논산시), 이하나(대구시 수성구), 이현주(강원 속초시), 이효은(대구시 달성군), 조윤영(경기 고양시), 허유림(강원 인제읍), 황옥주(전남 광양시)

2019년 7월 1일, 창립 19주년을 맞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독자엽서에 보내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QUEST
구독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구독은 '웹진(hirasabo.or.kr)' > 구독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은 웹진(hirasabo.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년 병원급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과 증명서 발급비용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합니다



비급여란?

-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 상이)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방법

- (인터넷)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비급여 진료비 안내
- (모바일) '건강정보' 앱 → 비급여 진료비 정보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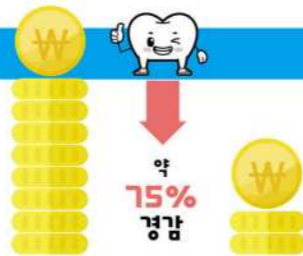


건강보험 적용 대상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구강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큰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 전체의 치아우식증(충치)**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부담 경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 환자 부담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평균 10만원 → 약 2만5천원 수준으로,
기존에 비해 **약 75% 경감**



의약계 안내사항

요양기관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알짜 정보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고혈압(13차)·당뇨병(7차) 적정성 평가결과	46
폐렴(3차) 적정성 평가결과	50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52
알코올 전문병원 제도	54
2019년도 상반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56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방문 컨설팅	58



고혈압(13차)·당뇨병(7차)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배경 및 목적

- 고혈압과 당뇨병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 이에,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합병증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자 매년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까운 일차의료기관에서 꾸준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가 우수(양호)한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관련근거: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고시 제2017-97호, '17.6.15.)

고혈압·당뇨병 외래 진료 환자 현황

(단위: 천 명, %)

진료년도	총환자수	고혈압(A)		당뇨병(B)		두 질환 중복(C)	
		환자수	70세 이상	환자수	70세 이상	환자수	70세 이상
2018	9,168	8,068 (100.0)	2,689 (33.3)	3,037 (100.0)	1,044 (34.4)	1,937 (100.0)	804 (41.5)
2017	8,804	7,792 (100.0)	2,555 (32.8)	2,846 (100.0)	967 (34.0)	1,834 (100.0)	752 (41.0)

평가대상

	고혈압	당뇨병
대상 기간	2017년 7월 ~ 2018년 6월(1년)	
대상 기관	외래에서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료기관	외래에서 당뇨병 상병 청구 또는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이 발생한 의료기관
대상 환자	고혈압을 주·부상병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30세 이상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당뇨병을 주·부상병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평가기준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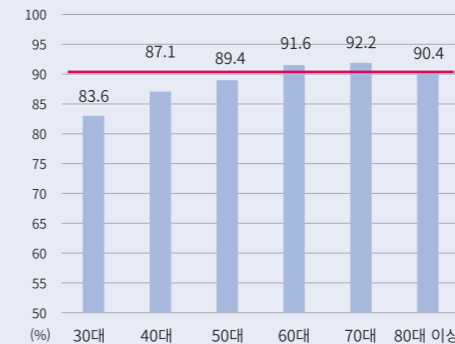
(단위: %)

영역	고혈압		평가결과	영역	당뇨병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지표		
처방 지속성	처방일수율(▲)		90.5	치료 지속성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84.7
	처방지속군 비율(▲)		85.0		처방일수율(▲)		90.6
처방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0.40	처방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0.15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이노제 병용 투여율(▲)	85.43		4성분군 이상 처방률(▼)		1.03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처방률(▼)	1.19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83.1
					지질 검사 시행률(▲)		80.3
				안저 검사 시행률(▲)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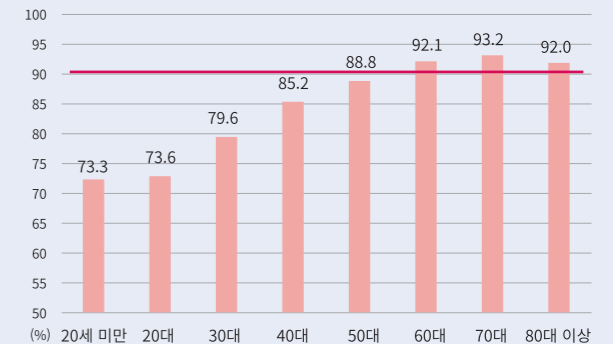
주) ▲ 높을수록 좋은 지표, ▼ 낮을수록 좋은 지표

- 이번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외래 진료분이 대상이며, ▶치료 지속성 ▶약 처방 적절성 ▶검사 영역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치료 지속성 영역은 평가대상 기간(1년) 중 혈압약 및 당뇨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고혈압 환자의 혈압약 '처방일수율'은 90.5%(330.3일)이고, '처방지속군(292일 이상 처방 환자) 비율'은 85.0%입니다.
 - 당뇨병 환자의 당뇨약 '처방일수율'은 90.6%(330.7일)로 나타났습니다.
 -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정도가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젊은 연령층의 처방일수율이 낮게 나타나 고혈압·당뇨병 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고혈압 평가 연령별 '처방일수율'



당뇨병 평가 연령별 '처방일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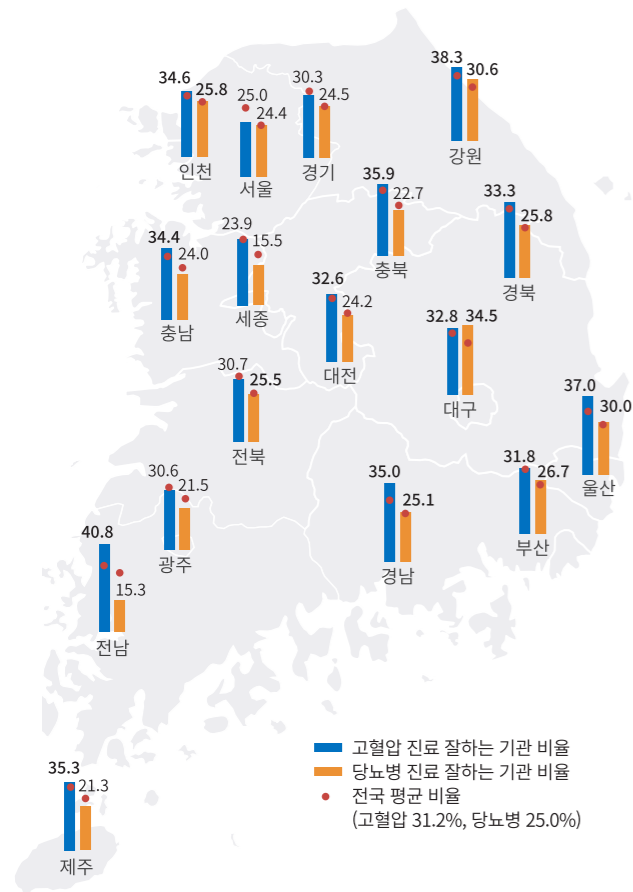


- 검사 영역은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검사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 시력과 관련된 합병증 위험을 진단하는 '안저 검사 시행률'이 44.6%로 낮아, 안저 검사에 대한 의료기관 및 환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 당화혈색소 검사 (6차) 81.1% → (7차) 83.1%, 지질 검사 (6차) 79.0% → (7차) 80.3%, 안저 검사 (6차) 44.4% → (7차)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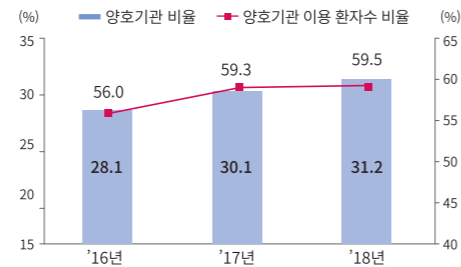
평가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고혈압(13차)·당뇨병(7차)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 의원을 4월 11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만성질환 > 고혈압·당뇨병
-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고혈압·당뇨병 평가결과 우수(양호)한 동네의원은 고혈압 5,711개소, 당뇨병 3,549개소이며, 둘 다 잘하는 의원도 2,342개소입니다.
- 양호기관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양호기관 비율 및 이용 환자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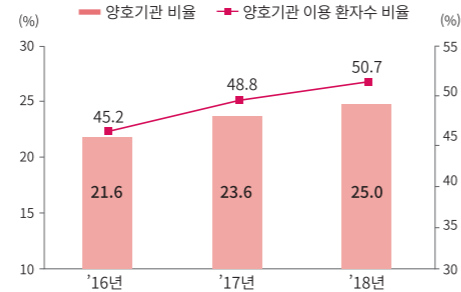
고혈압·당뇨병 양호 의원 지역별 현황



고혈압 양호 의원 현황



당뇨병 양호 의원 현황



향후 계획

- 심사평가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료계 등과 적극 협력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고혈압·당뇨병은 초기 자각 증상이 없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까운 동네 의원을 적극 활용하여 꾸준히 관리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폐렴(3차) 적정성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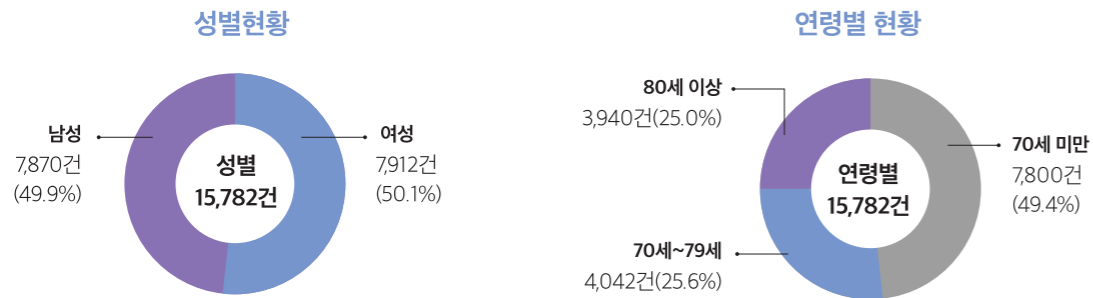
평가배경 및 목적

- 폐렴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노령인구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며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노인환자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폐렴 적정성 평가를 통하여 진단 및 치료의 질을 개선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평가대상

- 제3차 폐렴 적정성 평가는 2017년 10~12월까지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실시한 전국 4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하여 입원 48시간 이내 진단된 폐렴

평가현황



평가기준(평가지표)

-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 (혈액배양검사 시행건수 중)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 금연교육 실시율
-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인율

평가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폐렴 진료 우수기관인 1등급 기관이 249곳이었습니다. 기관별 상세 평가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급성질환 > 폐렴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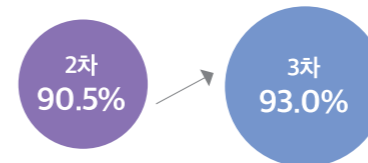
중증 폐렴의 경우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상태를 파악하여 산소 투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중증도 판정도구는 입원여부, 중환자실 치료 등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폐렴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원인균을 파악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폐렴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적절한 항생제를 신속히 투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한눈에 확인하고 비교해보세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분석하여, 최저·최고·중간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매년 4월 1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간금액: 전체 발생금액 중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

비급여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력교정술(라식),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비급여입니다. 이러한 비급여항목은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추가된 항목은?

올해는 예방접종료,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을 추가하여 총 340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료'의 경우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를 보였고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를 대체하여 근시 및 원시 등의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최저·최고 간 4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해당항목은 약제별, 치료재료별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단위: 원, 배)

구분	병원종별	진료비용				
		최저금액(a)	최고금액(b)	중간금액	평균금액	b/a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2항목)*	상급종합	92,400	195,000	170,000	165,522	2.1
	종합병원	98,950	209,000	180,000	173,083	2.1
	병원	98,900	210,000	180,000	171,036	2.1
조절성 인공수정체 (24항목)**	요양병원	100,000	250,000	170,000	164,283	2.5
	상급종합	625,000	2,532,500	1,920,000	1,883,304	4.1
	종합병원	700,000	3,000,000	1,998,000	2,001,960	4.3
병원	1,200,000	5,000,000	2,500,000	2,546,745	4.2	

* '대상포진'은 약제 2항목을 분석(1회 접종 금액) ** 조절성 인공수정체 24항목을 분석

※ 2019.4.1. 공개 분석자료로 이후 홈페이지 공개가격과 다를 수 있음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회는 어떻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각 항목별 의료기관별 최저·최고비용 및 각 항목의 병원규모별, 지역별, 최저·최고·중간·평균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기관별 현황정보와 병원규모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초기화면 배너 내 '비급여진료비안내' 또는 메뉴 내 진료비 > 비급여진료비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앱 '건강정보'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건강정보'로 검색, 무료 내려받기 가능



의료기관의 장은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및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10일 이내 변경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제10조



알코올 전문병원 제도

알코올 전문병원이란?

- 알코올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 중에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필수 진료과목', '병상 수',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총 7가지 지정기준을 모두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알코올 전문병원 지정기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수	최소 병상 수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MDC 'V' 알코올/ 약물사용 및 알코올/ 약물로 인한 정신장애 66% 이상	연 환자 수 7,428명 이상	정신건강 의학과	4명 이상 (정신건강 의학과)	80병상	70점 이상	인증

알코올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 국민에게 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코올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병원의 전문인력 등을 평가하는 구조지표 4개, 진료과정 등을 평가하는 과정지표 9개, 총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구조	알코올 전문인력 구성 여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알코올 전문인력 교육 참여율(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환자 상태에 따른 병동 운영 여부
	휴게공간, 산책로, 운동시설 유무
과정	개인력과 환자상태를 포함한 전반적인 환자평가 기록률
	환자상태 평가를 위한 검사 시행률
	입·퇴원 시 치료계획 수립률
	환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 여부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
	항갈망제 처방률
	퇴원 후 30일 내 1회 이상 외래 방문율
	퇴원 환자의 단주유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여부
	알코올상담센터 위탁·운영 여부 및 지역자조모임 관리 여부

알코올 전문병원 현황

- 3기(2018~2020) 알코올 전문병원은 현재 9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4기관, 부산광역시 1기관, 광주광역시 1기관, 충청남도 2기관, 경상남도 1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코올 전문병원 현황

요양기관명	지역	대표 전화번호
온사랑병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051-555-0808
아주편한병원	경기도 수원시	031-269-5665
진병원	경기도 부천시	032-322-8275
다사랑중앙병원	경기도 의왕시	031-340-5000
더블유진병원	경기도 부천시	032-321-1433
예사랑병원	충청남도 청주시	043-298-7337
주사랑병원	충청남도 청주시	043-286-0692
다사랑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062-380-3800
한사랑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055-722-7000

전문병원 확인 방법

- 전문병원은 별도의 마크로 사용하여 광고하고 있으니, 마크로 확인이 가능하며, 전문병원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병원 마크		전문병원 명단 확인방법	심평원 홈페이지/ 병원·약국/ 병원·약국찾기/ 세부조건별찾기// 병원규모별·전문병원
------------	--	-----------------	---

2019년도 상반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개요 및 목적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청구 행태를 정착시킴은 물론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19.2.22.)를 거쳐 2019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예고 하였습니다.

사전예고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의약관련단체, 보장기관(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시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 조사대상 항목

- ①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 선정사유: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
 -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20개소
- ②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 선정사유: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
 -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10개소

정보 조회

- 보건복지부 (www.mohw.go.kr/알림/보도자료 15168번 게시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알림/공지사항)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 하반기에는 의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 2014년 이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조사년도	기획조사 항목
2014	① 의료급여 한방 청구기관 실태조사
	②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2015	①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2016	①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②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2017	①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2018	①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②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주관 의료급여 기획조사 항목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방문 컨설팅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국민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의약단체와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표준가이드 마련, 교육, 기술지원 등의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 행정안전부가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16.8.)
- 개인정보처리자의 원활한 자율규제 활동을 돕기 위해 분야별 자율규제단체 및 전문기관을 지정
 -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 (의료분야 자율규제 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24호(2019.3.8.)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규제단체 업무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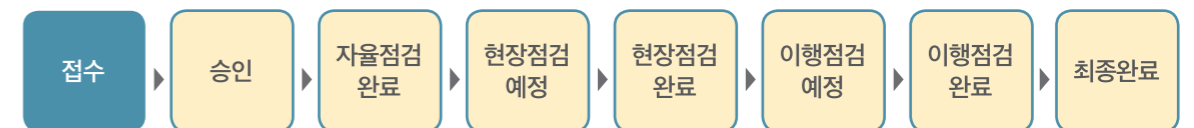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 현장방문 컨설팅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지원 활동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용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접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의료현장에 방문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대상:**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소속 요양기관
- **점검항목:** 자율점검 서비스 49개 항목과 동일
- **신청방식:**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19.5.1. ~ '19.8.31.(각 의약단체별 선착순 50개 기관까지 신청 가능)
 - * 신청 후 심사평가원 및 의약단체 담당자가 유선 안내
- **주요내용**
 -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서비스팀(심사평가원 및 의약단체 담당자)이 현장 방문하여 관리 수준을 확인
 - 개선 및 현행화, 이행 관리 등 요양기관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컨설팅해주는 서비스

※ 현장방문 컨설팅 서비스는 자율점검 49개 항목을 상세히 설명하므로 약 3시간의 상담시간이 소요됨

서비스 단계별 진행절차





서비스 신청방법

- ①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② 메뉴이동: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현장방문컨설팅서비스 → 현장컨설팅 신청

찾아가는 절차



신청화면



2019년 5월 1일부터

두경부(눈, 귀, 코, 안면 등) MRI 검사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눈, 귀, 코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중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삼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자

의료비 부담 경감

-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건강보험 확대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 MRI 장비(1.5이상~3T미만) 사용, 특수결 조영제 1회 촬영 비용 기준